



(왼쪽부터)미국 뉴욕 소재 195브로드웨이 빌딩, 프랑스 파리 소재 EQHO 빌딩, 핀란드 헬싱키 소재 OP금융그룹사옥. /NH농협리츠운용

# NH프라임리츠 첫 배당 주당 127원 年 5% 상회

정기주총 결의 후 8월 중 지급 4개 자산 평균 공실률 1%대 해외 프라임급 오피스 추가 편입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프라임리츠)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NH농협리츠운용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장된 후 첫 배당금이다.

배당금액은 주당 127원으로 연 환산 시 공모가 5000원 기준 5%를 웃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7월 28일 예정) 결의 후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NH프라임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편입된 4개 자산의 현재 시점 공실률은 평균 1%대 수준에 불과하다. 도심과 강남의 평균 시장공실률 8.8%와 4.8%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NH프라임리츠의 추가 자산편입에 대한 결의도 이뤄졌다.

NH농협리츠운용은 작년 12월 NH프라임리츠 상장 이후 추가자산 편입을 위해 13개 이상의 물건을 검토해 왔고, 이 가운데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프라임급 오피스의 부동산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로 결정했다. 신규 편입 자산은 ▲195브로드웨이빌딩(미국 뉴욕) ▲EQHO타워(프랑스 파리) ▲OP금융그룹 사옥 빌딩(핀란드 헬싱키) 등이다.

미국 뉴욕 195브로드웨이빌딩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구찌(Gucci), 프랑스 파리 EQHO타워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와 프랑스은행 등이 주요 임차인으로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OP금융그룹사옥 빌딩은 핀란드 최대 금융사인 OP금융그룹과 핀란드 국세청이 장기 임차하고 있다.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이종은 NH농협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장은 "코로나19에도 영향이 미미한 우량 임차인으로 구성된 프라임급 오피스 자산과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률은 NH프라임리츠의 강점"이라며 "이번 첫 결산을 통해 NH프라임리츠의 안정성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편입 자산이 확대될수록 매각차익에 대한 기회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반기 유상증자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프라임급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 시가총액 확대에 유동성과 거래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츠지수 편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아이파크, 상황별 맞춤 LED 감성조명 적용

HDC현산, 업계 최초 시스템 도입 전기-통신 결합 '산업융합' 신기술

HDC현대산업개발이 조명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아이파크(IPARK)에 도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28일 "주거공간에서의 일상이 더욱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음성인식 AI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 감성조명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HDC아이콘 트롤스가 공동 개발해 적용한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은 전기와 통신을 결합한 '산업융합' 신기술 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까지 완료된 공동주택 조명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단조로운 온·오프 조명에서 벗어나 전구색에서 주광색까지 색온도 변화까지 줄 수 있다. 고객들이 가구 내 월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에 스마트 LED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조명을 밝힌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어디서든 다양한 생활환경에 어울리는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다.

조그다이얼이 내장된 거실 월패드와 각 실 에너지미터,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입주민 기호에 따라 가구 내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독서모드, 휴식모드, 무비모드, 취침모드 등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조명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침실, 화장대, 욕실, 주차장 등 실내의 주요동선에 적용돼 일상 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일정한 조도 유지를 통한 눈부심 억제로 눈의 피로를 완화해 줄 수 있다.

실내뿐 아니라 외관에서도 조명제어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 LED 원격제어시스템을 아이파크 시공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호반건설, 770억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부산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호반건설

동성하이타운조합, 시공사 선정 지하 4~지상 35층, 2022년 착공

호반건설이 부산광역시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7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56-9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268가구와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규모는 약 770억 원이다. 조합은 연내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 대연역과 가깝고, 도시고속도로, 광안대교를 통해 시내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대연동 일대에는 약 1만 가구의 신형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과 호반써밋 브랜드를 믿고 선택한 조합과 조합원에게 감사한다"며 "뛰어난 입지에 걸맞은 명품 단지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부산광역시에서는 초량2구역, 초량3구역,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 2차전지 등 강세... 국내주식섹터 1.92% ↑

## 주간펀드동향

해외 주식형 펀드 0.61% 상승 인도 4.57% 중국 2.49% 강세

국내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형주식형 펀드는 강세를 기록했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6월 19일~25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61% 하락했다. 금, 2차전지 등 특정 섹터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은 오히려 1.92% 상승했다.

설정액은 396억원 늘었다. 액티브펀드는 모든 유형에서 설정액이 줄었지만,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1655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 설정액이 대폭 증가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0.6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인도(4.57%), 중국(2.49%) 등이 강세를 보였고, 섹터별로는 소재섹터(4.28%)가 크게 상승했다.

설정액은 667억원 줄었다. 지난주에 이어 중국펀드에서 747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 펀드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 섹터 주식형 펀드는 오히려 설정액이 152억원 늘었다.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3.98%)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공개(IPO)로 상장한 종목들의 증가가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해외주식형에서는 금에 투자하는 '블랙록월드골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4)'가 6.63%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25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주보다 0.99% 하락한 2112.37 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선진국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 주보다 1.0% 하락했고, MSCI 신흥국(EM) 지수는 0.93% 올랐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LH, 스마트 도시위한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착수

3기 신도시 도시계획 적용 추진 가상현실 구현해 도시문제 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율적 도시계획과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LH형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구축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사람·사물 등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조연결되어 현실세계가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되고 실제현상 및 실시간데이터 수집·연계·분석을 통해 현실의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LH는 3기신도시 등 도시개발 정책 사업 확대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 도시·건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하는 'LH형 디지털트윈' 1단계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도시계획에 적용할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가상모델 기반의



디지털트윈 구축예시. /LH

다양한 사전분석을 통해 효율적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사업확장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공사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사업에는 'IoT 연계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이 시범 적용되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의 중요 요구사항인 '실시간 상황 인지'를 위해 3차원 도시모델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

는 OGC(개방형 공간 정보 컨소시엄)와 공동 주관하고 해외 7개국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난 4월 LH가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3차원 실내외 도시모델과 실시간 IoT 센서를 통합 개발한 기술로, 미세먼지 및 실내점유자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3D 기반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